

심각한 폭력(살인) 가해 학생에 대한 사례 분석: 폭력 유발 요인과 예방안*

이 규 미 이 대 식 김 영 혜[†]
아주대학교 경인교육대 서강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극단적인 폭력 행위(살인)를 저지른 학생 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그 행위 발생 배경과 과정, 관련 심리적 특성과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례 분석 결과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삼각 측정법(triangulation)을 적용하였다. 즉 다양한 출처(사건보고서, 검찰과 법원 자료, 연구 대상 및 관련 인물 인터뷰 등)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상담 및 임상심리전문가, 그리고 정신과 전문의 등 5인의 외부 전문가에게 연구자 3인의 합치된 분석 내용의 타당도를 평정하도록 하였다. 사례 분석 결과, 극단적인 폭력 행위를 한 가해 청소년의 심리적, 환경적 취약점, 사소하지만 지속적인 또래로부터의 괴롭힘, 대중매체에 나타난 폭력에의 노출, 또래들의 폭력피해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교사 대처의 미흡 등이 복합적·상승적으로 작용하여 극단적인 폭력 행위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극단적인 폭력은 다면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통해 예방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가해 학생을 심층 분석한 결과라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폭력 행동의 개인적 원인과 촉발 과정, 관련 변인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학교 폭력, 살인, 가해 학생, 폭력 유발 요인, 학교 폭력 예방

이규미는 아주대 교육대학원, 이대식은 경인교육대, 김영혜는 서강대 학생생활상담연구소에 근무하고 있음.
* 본 연구는 2001년도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교육정책연구과제)에 의해 지원되었음.
† 교신저자 : 김 영 혜, (121-742)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1번지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전화 : 02-705-8272 E-mail: yh9848@sogang.ac.kr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학교 폭력은 피해 정도 측면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우려할 만하다. 교육 인적자원부와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01a)이 전국의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금품갈취, 구타, 협박, 괴롭힘 등의 전형적 유형의 학교폭력 피해율이 각각 10.1%, 9.2%, 9.4%, 10.7% 등에 이르렀다. 그 중 장기간의 치료와 후유증을 유발하는 심각한 학교 폭력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의 피해율은 1~2%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가 동일한 형태로 일관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폭력 피해율의 증감을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피해자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학교 폭력의 양상이 점차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집단 괴롭힘, 따돌림이 1990년대 말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고(박경숙, 손희권, 송혜경, 1998; 서울특별시 청소년 종합상담실, 1998; 청소년 대화의 광장, 1997), 최근에는 사이버 폭력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폭력이 문제되는가 하면(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01a), 무엇보다 급우살해, 친족살해 등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는 심각한 폭력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2001년도 3월에는 중3 학생이 친동생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고, 같은 해 10월에는 고1 학생이 수업 중인 교실에 들어가 급우를 칼로 찔러 죽게 한 사건이 있었다. 다시 2002년 4월 이와 유사하게 중3 학생이 교실에 들어가 급우를 살해한 사건(서울=연합뉴스, 2002. 4. 16)이 또 일어나서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특히 앞의 두 사건은 교실에서, 그것도 전체 급우들이 바라보는 데서 일어난 살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미국에서는 1999년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시내 한 고등학교 학생 두 명이 총기를 난사하여 15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20명 이상의 부상자를 낸 사건(워싱턴=연합뉴스, 1999. 4. 21)이 있었으며, 이를 전후하여 일련의 학교 내 총기 사건이 있어서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 주었다. 특히 심각한 학생 폭력 사건은 당사자들 뿐 아니라 주변 학생들에게까지 큰 충격을 안겨 주고 정신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미국 콜로라도 사건 이후 이 사건으로 신체가 마비된 학생과 절친한 친구와 교사가 희생되는 것을 목격한 학생이 각각 자살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AP=연합뉴스, 2000. 6. 15).

살인과 같이 극단적인 폭력행위를 범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여러 연구자들(Myers, Scott, Burgess, & Burgess, 1995; Santtila & Haapasalo, 1997; Zagar, Arbit, Hughes, Busell, & Busch, 1989)에 따르면, 이러한 청소년들은 대개 가정에서의 신체적 학대 경험, 발작 등 신경학적 문제, 정신병적 증후, 연령에 따른 공격성의 증가, 어린 연령부터의 약물 남용, 패거리 집단에 가담함 등의 특징을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Farrington(1998)은 청소년들의 폭력적인 행위의 위험 요인으로 생물학적 요인, 심리학적 혹은 성격적 요인, 가정 요인, 또래 비행, 낮은 사회, 경제적 지위, 그리고 질 나쁜 이웃 등을 제시했다. Elliott(1994)는 청소년 범죄나 공격성의 가장 직접적인 근거리 요인으로 또래 비행을 들고, 장기 요인으로는 가정환경, 초기 폭력 피해 경험, 부모의 제재, 그리고 가족간 연대의 약화 등을 제기했다. 즉 청소년 폭력의 원인에는 생물학적, 환경적, 개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어느 한 가지 요인을 강조해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평면적인 위험 요인의 열거로는 왜 어떤 청소년은 위험 요인을 많이 갖추고 있음에도 실제로 극단적인 폭력 행위를 범하

지 않는지, 혹은 왜 어떤 청소년은 위험 요인이 많지 않음에도 극단적인 폭력행위를 저지르게 되는지에 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심지어 Lewis와 그 동료들(1988)은 살인 등 극단적인 폭력을 저지른 청소년과 여타 폭력적인 청소년들을 구분 짓는 본질적인 특징은 찾을 수 없다고까지 주장했다. 이는 극단적인 폭력 행위가 왜 발생했고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개인이 갖고 있는 특징이나 평면적인 관련 위험 요인의 열거보다는, 이들 개인적인 특징과 요인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실제 폭력 행위로 나타나는가에 관한 보다 심층적인 정보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지금까지의 국내 연구도 주로 학교 주변 폭력 문제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학교 폭력을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가정, 학교, 사회 차원에서의 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의 방향 제시에 주력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이렇게 심각한 양상의 청소년 폭력 사례가 나타나면서 한 개인의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경로가 무엇이며, 문제 행동을 사전에 막기 위해 어떤 개입을 필요로 하는 지 좀더 세밀한 관찰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양적인 조사에서 발견할 수 없는 변인들, 즉 증세만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문제의 배경과 원인에 대해 보다 깊은 인식을 갖게 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 사례에 대해 심층 분석을 하는 것은 학교 폭력 사건에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최근(2000년 1월-2002년 4월) 교육인적자원부에 접수된 학교 폭

력 사례 기록 문서를 검토한 후 이 중 급우를 살해한 학생 사례 1건을 선정하여 다양한 출처로부터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가해 청소년의 심리적인 특징과 배경, 그리고 사건의 발생 배경과 경로 등 유발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 사례 분석을 통해 발견되는 시사점을 기초로 심각한 학교폭력 사건의 발견과 예방을 위한 학교 중심의 개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접수된 학교 관련 문서들 중 2000년 1월부터 2002년 4월 현재까지 전국 각 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구타 및 폭행, 살인 등 심각한 학교 폭력에 관한 '사건보고' 문서 39건을 1차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 자료들 중 전국의 주요 방송과 일간지 등 두 곳 이상의 언론 매체를 통해 공개 보도된 19건의 사례를 재분류한 후, 그 중 심각한 학교 폭력 형태인 살인을 저지른 세 사건을 다시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3건의 살인 사건 중 수업 중인 교실에 들어가 급우를 살해한 고1 남학생의 사례를 본 연구의 대상으로 결정하였다. 세 사건 중 두 사례는 각각 "사건 미종결" 및 "학교 장면 외 가해 사건"이라는 점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 대상인 해당 사례의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다.

(전략) "3월 초순 ...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반 급우가 된 이후, 평소 피의자가해자를 지칭)에게 특별한 이유는 말하지 않고 '니 빠리하다(피의자는 결렁하고 까분다는 뜻이라고 함)'며 피의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치거나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자주 폭행해 왔고 특히 같은 해 9. 28 13:30 분경인 학교 점심시간에 ... 실습실에서 10여분동안 피해자가 노래방에 가지 못한 것이 피의자 때문이라며 피해자로부터 주먹과 발로 심하게 폭행당한 것에 격분하여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이후,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것이 수치스러워 학교에 등교를 하지 않고 같은 달 30일 ... 친구 C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화면을 통해 피의자가 평소 자주 시청하여 심취한 영화 F를 보고 그 살해의 방법을 결심하고, 같은 해 10. 3 저녁 가출을 하여 친구들의 집을 전전하며 지내다 같은 달 13. 03:00 경 ... 친구 D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다 범행을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 칼꽂이에 꽂혀있던 식칼(총 길이 38센티미터, 칼날길이 23센티미터) 1개를 몰래 훔쳐 수건에 싸 종이쇼핑가방에 넣어 D의 방 침대 밑에 감춰둔 후(2001. 10. 13 담당 경찰서 범죄인지보고)..."

(사건당일) “교실로 올라가 보았더니 2교시 수업을 하고 있어 칼을 교복 상의 속으로 넣어 숨기고 종이가방은 교실 뒷문 앞에 버리고 교실뒷문을 차고 들어가면서 ‘B 어디 있노’ 하면서 살펴보니깐 B가 복도 창문 쪽 줄 제일 뒷자리에 앉아 책을 보는 자세로 있어 교복 상의에 숨긴 식칼을 꺼내어 뒤에서 등 쪽을 위에서 내려 찔렀습니다(2001. 10. 13. A 1회 신문조서).”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 단계에서는 사실 기술적 연구(naturalistic-ethnographic research)접근법을 취했다. 이러한 접근에서는 기록문서 연구(archival research), 구술한 역사(oral history), 질적 면접, 결

정적 사건보고서(피해자에 의해 기록이나 언어로 기술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본 연구에서도 연구 대상에 관한 사건 기록문서 및 관련 인물과의 심층 인터뷰, 관계 기관의 보고서 등을 토대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와 같이 수집된 자료들을 범주화하고 재분류하며 부호화 하는 과정을 거쳐 연구자들 간 합의된 분석 결과를 추출하였다. 또한 상담 및 임상심리전문가, 정신과 전문의 등 청소년 전문가 5인에게 연구자들의 분석 결과에 대한 타당성 평정을 의뢰하여 자료 수집과 분석과정 및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삼각측정법(triangulation)(김운옥 등, 2001; Gall, Borg, & Gall, 1996)을 적용하였다.

즉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경찰, 검찰, 구치소, 변호인 등의 협조를 요청하여 학교생활 및 성적, 가정환경, 사건 경위 및 사건 처리 상황에 대한 기록과 관련된 면담 자료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연구자들이 직접 가해자 본인, 급우, 교사, 사건 담당 경찰과 각 1회씩, 그리고 어머니와는 2회의 면담 기회를 가졌고 임상심리전문가에게 종합적인 심리평가를 의뢰하여 그 결과(2002. 5. 1)를 포함시켰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에 참여한 모든 대상들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 동의를 얻었으며 면담 자료는 녹음 기록되었다.

분석 및 타당화 과정

자료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타당화 절차를 거쳤다. 첫째, 3인의 연구자들이 사건 원 자료와 관련자 인터뷰 자료 등을 기초로 반복적으로 토론(21회)한 결과 일치된 의견을 내린 극단적인 폭력 행위의 원인·배경·경과·특징 등에 관한 46개의 심층 기술문을 작성하였다. 둘째, 5

인의 외부 전문가들에게 이 심층기술문의 타당도를 평정하도록 하였다. 타당도 평정에 참여한 외부전문가들은 청소년 폭력 분야에서 최소 10년부터 최장 26년까지 평균 17년의 상담 혹은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상담심리학자, 임상심리학자, 정신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외부 전문가들은 연구 대상 사건에 대한 심층기술문의 적절성정도를 5점 척도 상에 평정하였고 연구자들은 이들의 평정 점수들 중 평균 3점 이하인 항목은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41개의 항목을 사례분석 기술문으로 확정하였다.

결 과

분석 결과를 개인적 특징과 가정환경,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살인촉발요인, 영화와의 관련성, 학교 내 폭력분위기와 괴롭힘에 대한 또래들의 태도, 교사의 지도방법 등으로 유목화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적 특징과 가정환경

A(남)는 사건 당시 만 15 세로 대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모 공고 1학년 학생이었다. 그는 온순하고 착한 인상을 주나 산만하고 기초학력이 낮고(거의 꼴찌) 지각 결석을 하는 등 학교생활에는 다소 불성실한 학생이었다(학교기록). 평소 낙천적으로 보였으며(어머니, 2001. 10. 26) 내성적이고 겁이 많아 보였다(담임, 2001. 10. 13). 그리고 자주 웃기는 행동을 하며 영화 P의 대사나 행동을 자주 따라했고(급우 1, 2001. 10. 16), 중학교 때 선생님은 개그맨을 권할 정도로 웃기는 애였는데 고등학교 진학 후 짜증을 많이 내었다고 한다(어머니, 2001. 10. 26).

A의 부모는 10년 전부터 별거중이며, 타지방에 살고 있는 아버지는 “몇 년간 연락이 없어서 현재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연락처도 모른다”(2001. 10. 13 어머니). 사건 당시 어머니가 의류장사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형제로는 남동생(중 2)이 1명 있어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사례분석 결과 환경변인 측면에서 A에 대해 발견할 수 있었던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는 자신이나 환경에 대하여 비판적이고 자기비하적 생각을 갖고 있었으며, A는 부모의 갈등상황에서 자신은 아빠를 닮았다는 얘기와 아빠에 대한 비난을 동시에 들으면서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키웠을 것이다. A는 아빠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느꼈지만 표현할 수 없었을 것이다. A는 부모의 별거과정에서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가정을 어렵게 꾸려나가는 형편에서 어머니가 아들이 겪는 일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지도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A는 어머니에 대한 진솔한 감정 표현이 억제 당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컸음에도 이를 표현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배경 변인 중에서는 조기 애착 형성의 미흡, 결손 가정 환경,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홀어머니로부터의 관심부족 등이, 연구 대상 사례에서의 가해자가 극단적인 폭력 행위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게 노출되도록 하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A와 B(피살자)는 고1 모공고에 진학하면서 만난 급우였다. B는 ‘성적은 최하위였지만 성격이

활달하고 건달끼가 조금 있었으며,' '학년초,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인기가 있어서 반장으로 선출된' 학생이었다. '성적은 하위권이고, 지각을 하는 등 출석수범하지 못하여 반장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여 2학기가 들어서 반장에서 교체되었다', '싸움을 잘 하는 것으로 학생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고, 평소 급우들을 조금 괴롭히는 스타일'이었다(담임교사 2001. 10. 30 검사실 조서).

또한 '나이보다 성숙하고 활달하고 의리가 있으며 사교적인 성격'(B의 어머니. 2001. 10. 30 진술조서) 등으로 설명되고 있다. 급우들 사이에서는 B를 좋아하고 따르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B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친구들도 있었다(급우들의 면담결과). B는 부모가 이혼하였으며, 중학교 때 퇴학, 재입학, 전학의 기록 있고, 몸에 문신이 있었다. 사건이후 A는 자신이 B로부터 평소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주장하였고, B의 가족 측에서는 B가 '짱'으로 언론에 나쁘게 평가된 것에 대해 명예회복 시켜줄 것을 진정해 온 바 있다.

분석결과 이들의 관계에 대해 나타난 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의 입장에서 볼 때 B로부터 당한 괴롭힘은 지속적이었으며 B의 특특치는 행동과 같이 사소하지만 지속적인 괴롭힘도 A를 힘들게 한 것으로 보인다. A가 B로부터 당한 괴롭힘은 언어적, 육체적, 물질적인 것이었으나 또래들은 이를 일상적인 것으로 보았다. A는 다양한 괴롭힘의 징후를 나타내었으나 아무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다. A는 B로부터 학교를 옮기고 싶을 정도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지만 이 사실을 학교에 알리는 것을 꺼렸다. A가 괴롭힘을 학교에 알리지 않은 이유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아무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였다. A는 B보다 평소 덩치가 큰 데도 B로부터 위협을 받고 친구들도 이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 의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B는 자기보다 덩치가 크면서도 심성이 여리고 싸움을 잘 못하는 A가 만만하게 보였고, A의 괴롭힘을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우월감과 힘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배경변인과 그로 인한 아무지 못한 성격은 결국 살해당한 B로부터의 지속적이고 심신적 고통이 큰 학교 폭력에 노출됨으로써 현실감을 결여한 편집적 태도나 행위의 토대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사건축발사건과 관련변인

A가 저지른 사건의 직접적인 계기는 2001년 9월 28일 실습실에서 오해로 인하여 A가 B로부터 일방적 폭행을 당한 데서 비롯된다. 이날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A의 급우들 중 몇 명이 노래방에 가자고 제안을 했다.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다시 가지 말자는 얘기가 나올 때 B가 들어와 친구의 말을 듣고 자기 때문에 애들이 안가기로 한 것이고 A가 그렇게 선동한 것으로 오해를 하고 A를 일방적으로 때린 사건이다. 이 사건관련, 그리고 사건이후 살인사건으로 이어지기까지의 과정을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B는 2학기 들어 반장에서 밀려나고 친구들로부터도 따돌림을 당하는 분위기 때문에 민감해져 있다가 9월 28일 노래방 가는 일로 A에게 화풀이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B로부터 9월 28일 무차별적, 일방적, 공개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한 굴욕감이 살인 동기이다. A에게는 친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맞은 것이 큰 수치심으로, 그 수치심이 분노로 이어졌다.

A는 이러한 수치심을 만회하기 위하여 친구 앞에서 B를 죽이겠다고 다짐했다.

즉 9월 28일 학교 내 폭행사건 직후의 살인 언급(B를 죽이겠다고 말함)은 수치심과 굴욕감에 대한 반응이었다. B가 9월 28일 사건이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글은 A가 살인을 실행으로 옮기게 한 또 하나의 원인이었다. B의 인터넷상에서의 위협(위협하는 내용과 A의 어머니에 대한 욕설)은 공개적 과시적이며 집단적인 조치를 암시하고 있었으며 이는 A에게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가중시켰다. 실제 A가 9월 28일 사건 이후 느끼는 B의 보복에 대한 공포는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A는 학교나 경찰에 폭력피해를 알리는 것이 아무 도움도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그런 신고가 보복으로 이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A는 평소 B에게 '쌓인 감정 때문에' 9월 28일 사건 이후에도 다른 애들과의 관계에서와는 달리 B에 대한 감정이 풀리지 않았다. A가 친구들에게 살인언급을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이를 믿지 않았다. 이러한 A의 말들은 A 스스로 '살인을 실행하지 않으면 남자답지 않다, 쪽팔린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이것이 살인을 결심하고 유지시키게 된 요인이었다. A의 살인언급이 여러 번 있었음은 자신이 그만큼 억울하고 힘들다는 표현이었다. 범행전날 친구 엄마를 피해서 베란다에 숨어있던 것에 대한 설움과 모든 원인을 B에게 투사하였고 이런 태도가 다음날 결행을 부추기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대중매체(영화)와의 관련성

A는 남자다움에 대해 열등감을 갖고 있었는데

영화 F의 주인공이 이를 대리만족 시켜주었고 그런 이유로 영화에 집착하였다. 영화 F의 영향으로 살해무기를 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A는 영화 속 인물들과 자신을 동일시 한 것으로 보인다. A는 영화에서 가장 멋있게 기억하는 장면과 자신이 B를 죽이겠다고 선언한 대로 결행한 것을 일치시키고자 하였고 이러한 행동을 남자다운 것으로 생각했다.

학교 내 폭력분위기나 괴롭힘 상황에 대한 또래들의 태도 및 역할

A의 급우들은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학교 내 폭력에 대해 방관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이는 학생들이 학교 내 폭력에 둔감해져 있거나 애써 외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B의 오해로 A가 일방적인 폭행을 당할 때(9월 28일) 급우들은 적극적으로 오해임을 주지시키지 않았는데 이것은 B가 힘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묵인한 것(대항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B의 A에 대한 인터넷상의 위협을 많은 급우들이 보았음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 사례를 통해 볼 때 청소년들은 문제 해결방법으로 규칙이나 정의보다 폭력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폭력에 대해 만성화되어 있고 공권력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암시하는데, 이는 학교나 경찰이 무기력하다(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보복을 막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A는 교실에 들어가 급우인 B를 칼로 찌른 후 즉시 나와 계단에 칼을 버리고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는 이미 학교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로, A에게 빨리 택시를 타고 오라고 했고 A가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을 했을 때 어머니가 택시비를 내기 위해 기다리고 계셨다. 어머니는 곧바로 B가 옮겨진 병원으로 갔고 남겨진 A는 도망을 가기 위해 집을 나왔다. 이때 B가 칼에 찔렸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B의 친구들을 아파트 앞에서 만났고 곧이어 경찰을 만나 연행되었다.

살인사건 이후 B 친구들의 행동으로 보아 실제 보복 혹은 또 다른 폭력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었다. 살인 사건이후 어머니가 A를 만났을 때 경찰이나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고 방임한 것은 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부재로 실제 또 다른 위협의 가능성이 있었다. 살인사건 이후 A가 곧 후회하는 것으로 보아 사전에 부모, 친구, 학교 등 어떤 형태의 개입이 있었다면 살인사건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교사의 대처 방법

교사는 9월 28일 폭행사건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진상을 알아보기보다는 반성문을 쓰게 하고 또래들 간에 있을 수 있는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받아들였다. 살인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도 9.28 폭행사건을 회고하는 과정에서 “들 다 화가 나 있었으면 다 끌어 앉혀놓고 화를 풀어줬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학생들의 폭력사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심각한 학교 폭력의 한 유형인

살인 사건 가해자 1인에 대하여 사실-기술적 연구 접근법을 토대로 자료를 수집한 후 삼각측정법(triangulation)을 적용하여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사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사례에서 시사하는 몇 가지 논의점과 폭력 예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A는 괴롭힘의 피해자였으며 자신이 당한 피해와 관련된 생각(persecutory ideas), 극심한 갈등 및 누적된 감정을 유연하게 처리하지 못하여 결국 살인까지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A가 경험한 괴롭힘의 형태는 외현적일 뿐만 아니라, 사소하고도 지속적이었다. 이 사례에서는 사소한 집단 괴롭힘도 피해자에게는 매우 큰 괴로움을 주기 때문에 무시되거나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특히 A가 급우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B에게 구타를 당한 사건은 A 자신에게 풀리지 않는 억울함과 수치심을 안겨주었지만 학교에서 당하는 괴롭힘을 학교에 알려봤자 형식적인 지도만 있고 자신에게는 보복만 이어질 뿐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이에 맞서야 한다는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또한 어머니, 교사, 또래 중 그 누구도 이 사건의 진상에 대해 관심을 갖고 A의 억울함이나 수치심을 해결해 주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셋째, A는 결손가정의 자녀로 열등감을 갖고 있었다. A의 어머니는 가정을 꾸려나가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렸으므로 아들의 학교생활에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데 다소 어려움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A는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다양한 징후를 보여 왔다. 어머니는 이를 인지하였지만 미온적인 대처에 그쳤다. 이처럼 가정적 취약점을 갖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학교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이 사례에서도 학생들이 힘 있는 급우의 횡포에 대해 묵인하는 가운데 힘없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방관적 태도를 보였다. 몇몇 학생들은 폭력에 대해 모른 척 하는 이유가 보복이 두려워서라고 말하였다. 즉 학생들은 폭력적인 분위기를 배제하려는 의지와 방법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음이 드러났다.

다섯째, A가 체포되기 직전에 B의 친구들이 A를 데려가려는 것을 경찰관이 발견하여 제지하지 않았으면, 또 다른 심각한 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었다. 이는 청소년들 사이에 폭력 위험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예이다.

여섯째, 담임교사는 A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이후 장기결석을 하는 등 폭력 피해의 후유증을 보였으나 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일곱째, A는 힘 있고 긍정적 성인 모델 특히 남성모델을 갖고 있지 못했다. 이러한 점은 폭력을 주제로 한 영화 F의 주인공들에게 쉽게 심취하고 동일시하게 만들었다. 평소 겁이 많은 A가 칼을 살인 무기로 정할 수 있었던 것은 영화 F에서 칼로 사람을 찌르는 장면을 여러 차례 보면서 살인 방법을 학습한 결과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덟째, A는 사소한 정서적 자극을 억제하고 누적시키는 성향이 있었으며,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고 해결하는 등의 적절한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학교 폭력 발생 요인들에 대해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학생들 간의 사소한 폭력 피해도 적절한 개입 없이 지속적으로 방치될 때 또 다른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사소한 폭력 피해도

지속적일 때 피해 당사자에게 참을 수 없는 괴로움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폭력 피해는 주변에서 흔히 또래들 간에 있을 수 있는 대수롭지 않은 일로 소홀히 다루어질 수 있으나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분노를 누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저지른 심각한 폭력행위 가운데는 급우들로부터 당한 폭력 피해에 대한 보복행위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폭력 피해에 대한 보복 성격을 지닌 폭력은 더욱 심각한 형태를 띠 수 있는 것이다. 폭력이 정당화되는 하위문화에서 폭력피해자는 보복을 정당화하는 규범 때문에 쉽게 가해자로 전환되기도 한다(김준호, 1997)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비록 성격이나 기질 측면에서 공격성이 높지 않아도 폭력 피해 등으로 인한 장기간의 스트레스가 극단적인 폭력 행위를 유발할 수 있음은 이미 선행 연구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예컨대, Thomas(2001)는 살인 행위 청소년을 정신질환군과 스트레스군, 공격성향군으로 나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신질환군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정신질환 에피소드가 나타나며 그로 인해 의식 없이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이며, 과스트레스군은 극심한 스트레스 사건이나 상황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되는 경우들이다. 끝으로, 공격성향군은 성장사에서 지속적으로 공격성과 반사회적 성향을 찾아볼 수 있는 경우들이다. Cornell, Benedek, 그리고 Benedek(1987)도 강렬한 대인관계적 갈등이나 비난이 촉발요인으로 작용하여 살인을 범한 청소년을 따로 분류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본 사례의 경우, A군은 과스트레스군에 속하는 청소년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들은 평소 착한 인상을 주다가 갑자기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인데, 통제하기 힘든 스트레스를 경험한 청

소년이 이에 대한 반응으로 살인을 범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Thomas(2001)는 이에 속하는 경우로 정상적인 청소년인데도 압도적인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생활사건을 경험한 경우, 그리고 만성적인 우울이나 주의력 결핍장애 등 과도한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심리적 문제를 갖고 있는 청소년, 지적수준이 낮은 청소년 등을 그 예로 들고 있다. 지적으로 정상보다 경미하게 낮거나 높은 청소년은 사회적 관계도 강하고 적절한 도덕관도 갖고 있지만 분노나 침해에 대해 적절하게 표현하기 어렵고 극심한 좌절 상태에서 살인으로 치달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청소년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분노 조절이 잘 안 될 때 폭력 행위를 저지르게 되며 이러한 정서적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학교, 가정, 또래에게 어떻게 도움을 청할지 모르기 때문에 단순히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이 사례의 피해자, 가해자는 공격적인 성향의 청소년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위협적이고 적대적으로 인지하는 경향이 있어서 쉽게 폭력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Moeller(2001)의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셋째, 폭력적이고 잔인한 인터넷 사이트나 폭력 영화가 청소년의 자극 역제의 역할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례에서 가해자가 폭력 영화의 영향에 대해 직접 언급하기도 하였다.

넷째, 학교 폭력 피해 호소 학생에 대한 담임 교사의 적절한 조치 부재가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담임교사는 특별 지도를 요하는 학생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 일차적으로 상담하고 문제를 평가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과 책임 한계에 대해 사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학생을 발견했을 경우 교

사가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섯째, 학생들 사이에서 폭력에 의한 문제 해결이 만연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폭력을 통해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며, 힘없는 또래들은 무력하게 이를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폭력은 또래들 사이에서 쉽게 모방되며 폭력을 해결 방법으로 사용하는 학생들은 폭력을 반복하거나 쉽게 교정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또 다른 폭력을 일으킬 가능성을 높인다.

이상의 개별적인 폭력 사태 원인 분석 이외에,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 사례에서 각 원인들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여 극단적인 폭력행위까지 이르게 되었는가를 하나의 모형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본 분석 사례에서 가해 학생이 사소한 괴롭힘을 당하던 때부터 극단적인 폭력 행위를 저지르게 된 과정을 도식으로 설명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에 따르면, 우선 가해자는 배경 측면에서 결손 가정과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모로부터의 관심과 배려가 미흡한 점을 안고 있었다. 여기에 기질적으로 이러한 불리한 배경 변인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요소, 예컨대 겁이 많고 내성적인 특징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점은 연구 대상자가 당한 학교 폭력의 특징, 즉 지속적이며 집단적이고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모멸감과 수치심과 함께 안겨주는 형태의 학교 폭력을 당함으로써 가해자가 극단적인 폭력 행위를 할 가능성을 더욱 높여 주었다.

그리고 교사와 학교 그리고 또래들의 학교 폭력에 대한 미흡하고 미온적인 태도와 가정에서의 교육 및 상담 기능 부재는 그 가능성을 더욱 높여 주었고, 대중매체(영화)는 결국 그 탈출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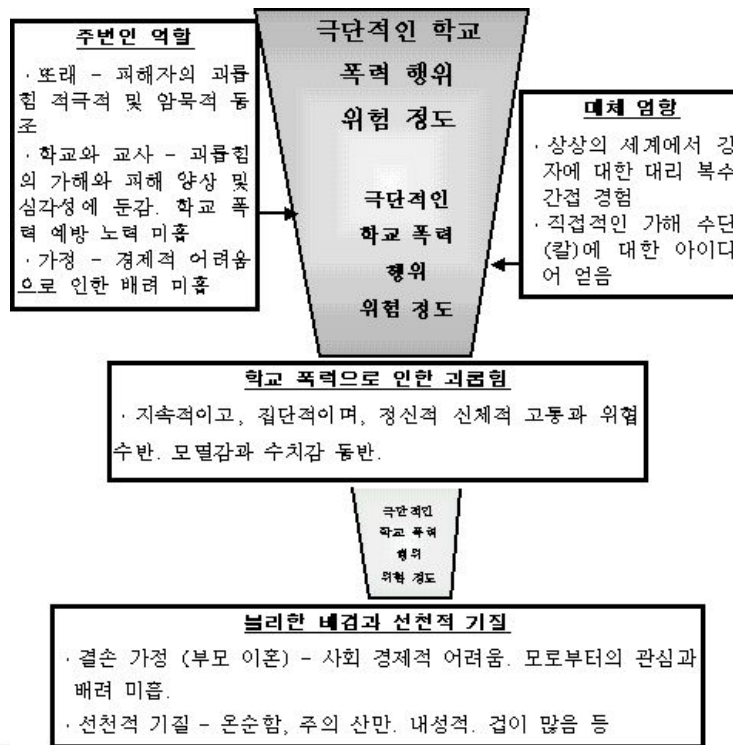


그림 1. 가해 학생의 극단적인 폭력 행위 실행 메카니즘

서 극단적인 폭력 행위를 선택하는 수단을 제공 해준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 대상 가해 학생은 학교 폭력의 영향이 부정적으로 극대화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변인들을 그것도 상대적으로 많고 심하게 갖고 있었다. 이러한 변인들은 그것 자체로서도 학교 폭력에의 위협성을 높게 가지고 있었지만 서로 부정적으로 상호작용 하면서 가해 학생으로 하여금 극단적인 폭력 행위를 하도록 하는 데 상승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분석에 따르면, 극단적인 폭력 행위는 어떤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는가보다는 그러한 요인들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여 극단적인 폭력 행위에 이르게 되는지에 관한 메카니즘을 이해

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많은 학생들이 가해 학생과 비슷한 환경이거나 혹은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경우도 많지만 그들 모두가 가해 학생처럼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이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와 유사하게, Farrington(1998)은 청소년들의 폭력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별 청소년이 갖고 있는 극단적인 폭력 행사 위험 요인과 개인 내 특질과 같은 발달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여러 가지 위험요인에 장기적으로 노출되었을 경우, 폭력성향이 강해지고, 이것이 실제 폭력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각 상황 하에서의 개인의 판단, 의사결정 성향, 이익과

손해의 비교 결과 등이 영향을 미친다.

위와 같은 본 연구진의 분석과 Farrington(1998)의 청소년 폭력 이론은 극단적인 학교 폭력 예방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시사한다. 첫째, 극단적인 학교 폭력 예방은 일시적인 임기응변적 단일 접근으로는 어렵다. 둘째, 개별 위험 요인뿐 아니라 여러 요인들이 동시에 부정적으로 상호작용하면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또래와 교사는 물론, 부모와 사회도 인식해야 한다. 셋째, 조기에 적절한 중재만이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바람직한 대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있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지속적으로 관찰함과 동시에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점을 중심으로 학교 폭력의 예방과 대처를 위해 특히 학교 현장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소한 폭력 피해 사례도 간과되거나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의식이 학생들 자신, 부모, 교사 모두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 사례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폭력에 대한 정의와 징후에 대한 홍보, 그리고 구체적인 교육 과정이 요구된다.

둘째, 학생들이 폭력 문화를 선망하지 않도록 조폭 문화를 미화하는 영화 등 비교육적 매체 제작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학생들에게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바람직한 문화 풍토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 게임의 잔인성과 폭력성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며, 특히 청소년들이 이러한 매체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미디어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가정의 구조적 결함이나 교육 기능상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학교와 사회의 보호 기능 강화가 요구된다. Heide(1999)는 가족구조의 변화나 자녀에 대한 무관심이 자녀에 대한 감독

소홀로 이어져 폭력의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가족구조의 변화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남성상의 부재와 모자간 관계가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아버지가 부재한 가정의 남자청소년은 남성다움을 과장하기 위하여 공격행동을 나타낼 수 있으며 어머니를 사랑하는 척 하지만 순종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가정과 학교, 지역 사회가 폭력 피해, 가해 사례를 발견했을 때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구체적이며 실천 가능한 제도 마련으로 청소년들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하며 교사들도 이러한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넷째,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례에 대해 교사가 지도할 수 있는 사례별 지침(manual)이 개발되어야 한다. 특히 학교 폭력 사례를 감지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교사가 이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적인 뒷받침도 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학교는 일차적으로 학생들의 잠재된 문제를 평가하고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일반교사가 특이한 학생, 잠재된 문제를 갖고 있는 학생을 발견했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과 지지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여섯째, 학생들을 위한 상담 인성 교육 강화로 분노 해결이나 문제 해결능력 등을 향상시켜 자신의 보호 능력을 키워 주어야 한다.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최근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관련 연구물 대부분

분은 학교폭력의 실태나 양상을 이해하기 위한 양적 연구가 대부분이어서 청소년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 이 주제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폭력 피해자에 대한 연구로 편중되어 있어서 청소년 폭력가해 행위를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사례분석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지며 폭력행동의 원인과 촉발 과정, 주변요인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문제와 같이 가설 중심의 연구보다는 사실 발견적 연구가 의의를 갖는 분야에서는 앞으로도 실제 사건이나 사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 및 관련인들의 협조와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대상이 폭력(살인) 가해자이며 법 집행 중이어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연구 협조를 요청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관계 기관 및 관련인들(법원, 경찰, 검찰, 변호사, 학교, 부모, 친구 등등)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자료 수집의 한계, 연구 대상자에 대한 보호 등의 문제로 주어진 자료에서 발견해 낸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추론만으로 결과 분석을 마쳐야 하는 한계가 있었음을 밝혀둔다.

참고문헌

고성혜 (2000). 비행청소년 상담연구.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협의회.
 광금주 (1999). 학교폭력 및 왕따 예방프로그램 (I):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연구, 5(2), 105-122.

광금주 (2002). 학교폭력 평가체계와 예방을 위한 제안.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 자료집. 청소년보호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01). 2001년 학교폭력실태조사 보고서.
 구효진 (2002). 영국내의 Anti Bullying Campaign에 관한 소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국민대 토론회 자료집. 청소년보호위원회.
 권이중 (1997). 학교폭력의 발생배경과 지도방안.
 권이중, 위여정, 전현정 (1998). 한국사회의 폭력 실태. 서울: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김두현, 구효진 (2002). 일본의 학교폭력 실태와 그 대책.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 자료집. 청소년보호위원회.
 김윤옥 외 (2001). 교육연구를 위한 질적연구방법과 설계. 문음사.
 김준호, 이순래 (1995). 소년범죄자의 성인범죄자로의 전이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준호 (1997). 청소년폭력. 한국청소년개발원.
 김현수 (2002).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는 준비되어 있는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 자료집. 청소년보호위원회.
 문화관광부 (2000). 청소년백서.
 문화관광부 (2001). 청소년백서.
 박경숙, 손희권, 송혜경 (1998). 학생의 왕따 현상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방재우 (1997).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마련세미나, 강남구립청소년회관.
 서울특별시청소년종합상담실 (1998). 왕따 현상에 대한 이해와 상담접근. 제1회 심포지엄자료집.
 유성경, 이소래, 송수민 (2000). 청소년 비행예방 및 개입전략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비행 수

- 준별, 유형별 위험요소 및 보호요소 분석. 한국청소년상담원.
- 이규미 (1996). 청소년 폭력과 집단 따돌림 상담.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 1999년 제9회 상담심리사 수련과정 연수자료.
- 이규미 (1999). 청소년의 분노와 분노처리과정에서의 공격행동에 관한 체험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장현, 우룡 (2001). 학교폭력의 최근동향과 문제점에 대한 고찰.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임영식 (2002). 각 나라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 방안.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자료집. 청소년보호위원회
- 전명기 (2000). 청소년 문제행동: 실태와 지도.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협의회.
- 조선일보. 2002. 3. 7.
- 청소년대화의 광장 (1997). 따돌리는 아이 따돌림 당하는 아이. 청소년상담연구보고서 29.
- 청소년보호위원회 (2002).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 자료집.
- 청소년상담센터. 강남구 청소년 폭력피해 실태 조사. <http://www.sangdamsil.or.kr/mag5-1.html>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1998a). 청소년 폭력 관련자료 비교분석. 서울: 청소년폭력 예방재단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1998b).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책. 서울: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01a). 2001 학교폭력 실태조사. 교육인적자원부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01b). 학교폭력이란.
- 최영신 (2001). 미국의 청소년 폭력예방 프로그램: 폭력예방을 위한 청사진. 통권 제 63호 형사정책연구소식.
- 학교폭력예방지침서 (2002). 청소년보호위원회. 미간행.
- 학교폭력실태조사 (2001).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범죄에 대한 청소년의 가치관과 태도에 관한 연구.
- 한명복 (1997).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마련세미나, 강남구립청소년회관.
- 홍대식 편저 (1993). 심리연구법. 서울: 양영각
- Bloomquist, M. L., & Schnell, S. V. (2002). *Helping children with aggression and conduct problem*. NY: The Guilford Press.
- Connor, D. F. (2002). *Agg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 in children and adolescents: Research and treatment*.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Cornell, D. G. (1999). *Profiles of violent youth: The psychology of the school shootings*. Testimony presented at the House Judiciary Committee.
- Cornell, D. G., Benedek, E. P., & Benedek, D. M. (1987).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charged with homicide: Review of 72 cases. *Behavioral Science and the law*, 5, 11-23.
- Dodge, K. A. (1980). Social cognition and children's aggressive behavior. *Child Development*, 51, 162-170.
- Farrington, D. P. (1998). Predictors, causes, and correlates of male youth violence. In M. Tonry & M. H. Moore (Eds.), *Youth violence* (Vol. 24) (pp. 421-476).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all, M. D., Borg, W. R., & Gall, J. P. (1996). *Educational research* (6th ed.). White Plains: Longman.
- Heide, K. M. (1997). Juvenile homicide in America: How can we stop the killing?. *Behavioral Science and the law*, 15, 203-220.
- Heide, K. M. (1999). *Young killers: the challenge of juvenile homicide*. Thousand Oaks, CA: Sage.
- Holsti, O. R. (1969). *Content analysis for the social*

- sciences. Reading, Mass.: Addison-Wesley.
- Lewis, D. O., Lovely, R., Yeager, C., Ferguson, G., Friedman, M., Sloane, G., Friedman, H., & Pincus, J. H. (1988). Intrinsic and environment characteristics juvenile murderer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7, 582-587.
- Moeller, T. G. (2001). *Youth aggression and violence: A psychological approach*. Mahwah,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Myers, W. C., Scott, K., Burgess, A. W., & Burgess, A. G. (1995). Psychology, biopsychosocial factors, crime characteristics, and classification of 25 homicidal youth.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4, 1483-1489.
- Santtila, P., & Haapasalo, J. (1997). Neurological and Psychological risk factors among young homicidal, violent and nonviolent offenders in Finland. *Homicide studies*, 1, 234-253.
- Thomas, M. G. (2001). *Youth Aggression and Violence: A Psychological Approach*.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Walker, H. M., Colvin, G., & Ramsey, E. (1995). *Antisocial behavior in school: Strategies and best practices*. Pacific Grove, CA: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Zagar, R., Arbit, J., Hughes, J. R., Busell, R. E., & Busch, K. G. (1989). Developmental and disruptive behavior disorders among delinqu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8, 437-440.

원 고 접 수 일 : 2002. 9. 30

수정원고접수일 : 2003. 5. 15

게 재 결 정 일 : 2003. 6. 7

A Case Study on an Extreme Violence Victimizer: Causes and Prevention of Extreme Violence

Kyu-Mee Lee	Dae-Sik Lee	Young-Hye Kim
Ajou University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o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tensively analyze a case of extreme school violence, focusing on a student victimizer, for providing information on the causes of the violence, related psychological factors, and prevention strategies. We used triangulation as one of the study methods in order to establish reliability and validity of our analysis. We collected data and information from various resources such as police reports, court documents, and interviews with the student, his family, friends, and teachers. We also asked five professionals of the area to rate the degree of their agreement with our analysis. Based on the analysis, we concluded that the student's extreme violence resulted from the additive and interactive combination of several factors, such as his psychological and environmental vulnerability to extreme violence, minor but continuous bullying by peers, being exposed to violence from mass media, peers' low-level recognition of school violence in general, and teachers' amateurish approaches. We suggested multiple and systematic counselling services as an alternative for preventing such extreme school violence. We hope this study contributes to extending our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the causes, processes, and related factors of extreme school violence.

Key Words : School Violence, Murder, Victimizer, Violence Triggers, Prevention school violence